

**- 54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온 서울의 명산 -
'북악산, 비밀의 문이 열린다'**

사업개요				사업 전체 설명
○ 기 간 : 2019. 9. ~ 2022. 5. ○ 사업비 : 60억원 (국 35억원, 시 20억 원, 특교금 5억 원) ○ 내 용				①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북악산 원형 복원(10,500㎡) ② 통제된 구간을 탐방로로 정비(총 6.0km), 북악산 한양도성 간 문화역사성 연계 ③ 유적지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살아 숨쉬는 이야기 제공 ④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한 교통·보행환경 개선 시설물 설치 → 탐방로 이용객 안전 확보 ⑤ 군 시설을 활용, 이용객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재탄생
구 분	1단계 개방구간	2단계 개방구간	청와대 개방구간	
위 치	한양도성 외측(북측) 폐쇄구간 (부암동 산2-1)	한양도성 내측(남측) 폐쇄구간 (삼청동 산2-1)	백악정 기점 순환 탐방로 구간 (삼청동 산2-27)	
사업비	20억원 (국10, 시10)	35억원 (국24.5, 시10.5)	5억원 (특교금)	
규 모	개방면적 54만㎡, 2.2km 탐방로, 화장실 2개소, 주차장 등	개방면적 56만㎡, 3.0km 탐방로, 안내소 1동, 화장실 1개소 등	0.8km 탐방로	

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단 주요의견

- 금단의 구역이었던 곳을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준 국토경관 재발견으로 의미가 지대함.
- 잊혀진 역사도심 핵심부의 경관원형을 회복하여 역사와 문화,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국토경관의 가치 제고와 국민의 높은 체감도가 돋보이는 작품.
- 청와대 등 높은 방문가치 장소로 인근 도심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매력도 높은 도심형 문화관광 거점공간 조성으로 공감대가 높은 사례.

한양도성 옆 탐방로	만세동방 주변 탐방로	청와대 개방구간 탐방로
		
청와대 탐방로 일대 광경	청와대전망대에서 본 전경	탐방로 전도
		